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67. 몬세라트(Montserrat) - 성모 마리아의 길(Cami de l'Ave Maria)

기도를 마치고 작은 계단을 통해 내려오니 어둑한 복도가 나왔다. 둥근 천장 아래 성모 마리아를 그린 벽화가 가득했다. 그 복도는 또 하나 작은 채플로 이어졌다. 장미 창으로 둘러 싸인 예쁜 채플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 계단은 바로 검은 마리아의 뒤편이었다. 검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이 채플로 들어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채플은 1885년에 건축했다고 한다. 발라 이 로사 노라는 건축가가 건축을 지휘했는데 젊은 시절의 안토니 가우디가 보조 건축가였다고 해서 채플 안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어쩐지 구불구불한 조개 껍질 같은 장식품들이 보여서 흥미로웠는데 가우디의 자취가 분명해 보였다.



어 나온 양파와 날개(?) , 불꽃 등이 합쳐져 오히려 힌두교의 시바처럼 보였다. R과 나는 이 '기이한' 성모 마리아상이 무서워서 얼른 그 앞을 지나쳤다.

성모 마리아의 촛불 길은 약간 내리막을 그리며 동굴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어졌다. 몬세라트의 어느 암굴에서 발견되었던 검은 마리아를 기리는 타일화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로 촛불과 램프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돌로 쌓은 벽과 천장은 오랜 시간 촛불의 그늘림 때문에 검게 변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칫하면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다. 만약 성수기에 왔으면 사람들이 몰려서 관광지 같은 느낌만 강했을 것인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동굴길에 영롱한 촛불만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환하게 밝힌 램프 빛 아래 그림 속 검은 마리아가 촛불 기도를 곁들여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켜 놓고 간 촛불들의 진정성에 감동 받았다. "우리도 촛불 하나씩 밝히고 떠나자." 다시 촛불길 입구로 되돌아가 우리는 촛불 하나씩 샀다. 어디에 밝힐까 고민 끝에 촛불길 암굴에 꾸민 공간들보다는 그래도 검은 마리아가 있는 동굴 안에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검은 마리아 타일 그림이 있는 한가운데로부터 약간 오른쪽 촛불 진열대 중간에 우리 촛불 조심스레 꽂아 넣었다. R의 것은 빨간색, 내 것은 하얀색이다. 우리 촛불들은 약간씩 스치는 공기에 가만히 일렁이며 거기에 꽂힌 수많은 촛불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몬세라트에 와서 밝힌 우리들의 촛불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은 타오르리라 생각하니 다시 한 번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R과 나는 까미 델 아베 마리아에 밝혀 놓은 우리의 촛불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여정 길을 환하게 비추 줄 것이라 믿으며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채플을 나오면 그대로 그곳은 촛불이 밝혀져 있는 성모 마리아의 길(까미 델 아베 마리아)로 이어졌다. 검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밝혀 놓고 떠나는 곳이었다. 암벽에 공간을 만들어 쇠로 만든 진열대 위에 촛불을 꽂게 되어 있었다. 검은 마리아상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새긴 기도문들이 예쁜 꽃타일에 장식되어 암굴 입구에 여기저기 붙여져 있었다. 여기에 밝힐 유리병 초는 촛불길 입구에 박스째로 쌓여 있고 무인 판매라 각자 알아서 준비된 통에 돈을 넣고 가져 가게 되어 있었다. 그 대신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잔돈이 없는 사람은 현금하는 마음으로 초를 사야 한다.

길의 중간에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하나 서 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인데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서 있는 자세로 미루어 아마 이곳이 촛불을 밝히는 곳이라 타오르는 불꽃 속에 서 있는 성모를 묘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앙상한 몸매에서 뿜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 ★ OC 전지역 전문 부동산에이전트
- ★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 상담환영
- ★ 리스팅, 바잉 & 1031 Exchange 전문
- ★ 주택매매, 렌트, 커머셜, 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애니 윤
 Annie K Yoon
C. 657.222.7331

뉴스타 탐진
 중앙일보 & 조선일보 컬럼
 FIT (In 뉴욕주) 부천여중/고졸
 서울 서초구 상공회의소 37이사 역임
 전미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R)
 가주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DRE #: 02119369 Realtor®

annieyoon@newstarrealty.com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 횡집으로 오세요!!

1주년 기념 **즉석 추천 이벤트 1 메뉴 FREE**
*FREE 메뉴는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한달간 월~목)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